유통가 "봄바람 따라가는 고객 마음 잡는다"

신세계그룹 '랜더스데이', 계열사 총출동 1조원 규모 혜택
롯데백화점 '슈퍼피버', 300여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

예년보다 늦어진 봄꽃 개화 소식에 이번주부터 벚꽃, 개나리 등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나들이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유통가도 봄바람 따라 야외로 향하는 고객들의 발걸음을 붙잡기 위해 분주하다. 신세계그룹, 롯데백화점에서는 꽃놀이, 등산 등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쇼핑객들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고 최대 50%를 할인하는 등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먼저 신세계그룹의 쇼핑 축제 '2024 랜더스데이'가 4월1일 문을 연다. 신세계그룹의 상반기 최대 쇼핑 행사인 랜더스데이는 지난해보다 2배 늘린 약1조원 규모의 초대형 쇼핑 혜택을 오는 7일까지 선보인다.

패션, 레저뿐 아니라 식품, 리빙, 가전 등 일상을 아우르는 모든 분야에서 고물가 부담을 덜어 줄 할인 혜택과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고 팝업스토어도 풍성하게 기획했다.

SSG닷컴·G마켓 등 온라인 계열사는 4월1-7일간, 이마트·신세계 등 오프라인 계열사는 주말인 5-7일에 집중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내달 1일 오전 SSG닷컴 내 신세계그룹 랜더스데이 통합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2만여명의 고객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했던 랜더스데이 사전 프로모션도 오는 31일까지 동일하게 진행한다. SSG닷컴 랜더스데이 페이지에서 퀴즈 맞추기, 공유하기 이벤트 등에 참여하면 조선호텔 숙박권과 상품권 등을, 신세계그룹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랜더스데이 기대평을 남기면 추신수 선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유니폼과 볼, 에어팟 등을 추첨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이 '슈퍼 베네핏' 혜택이 적용되는 선크림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롯데백화점은 29일부터 '슈퍼 피버(SUPER FEVER)'를 시작한다. 슈퍼 피버에서는 스포츠, 애슬레저, 뷰티, 패션, 리빙 등 3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과 구매 혜택을 내달 14일까지 제공한다.

본격적으로 외부 활동이 증가하는 4월은 상반기 중 애슬레저와 스포츠 상품군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달이기도 하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애슬레저 상품군 참여 브랜드를 지난해보다 10% 늘리고 단독 상품을 선보여 고객 수요 잡기에 나섰다.

슈퍼 피버 기간 중 진행되는 '슈퍼 프라이스(SUPER PRICE)'는 캠핑과 피크닉 등 야외 활동에 필요한 상품군 중 인기 제품을 특가로 기획한 프로모션이다. 스노우 피크, 내셔널지오그래픽 등에서 롯데백화점 단독 상품과 함께 최대 50% 이상 할인된 단독 특가 상품도 만나 볼 수 있다.

뷰티, 스포츠 상품 구매시 할인권을 제공하는 '슈퍼 베네핏(SUPER BENEFIT)'도 진행한다. 뷰티제품은 행사 기간 동안 3차에 걸쳐 MD들이 엄선한 5개의 아이템을 특가에 선보이고 1만원 선착순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은솔 기자

'보해 복분자주' 파리 패션 중심지 등장 '주목'

미스치프 파리 팝업 오프닝 파티서 'K-와인'으로 소개

'보해 복분자주'가 최근 진행된 '2024 F/W 파리 우먼즈 패션위크' 기간에 문을 연 미스치프(MSCHF)의 Pop-up& Party에 'K-와인'으로 소개돼 주목을 끌었다. 〈사진〉

28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미스치프는 지난달 29일 오프닝 파티를 시작으로, 패션위크 기간 중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서 팝업을 운영했다.

서브컬처 기반 스트릿 캐주얼 브랜드인 미스치프는 매년 색다른 컬렉션과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팝업에서도 신규 컬렉션과 브랜드 협업 제품을 선보였다.

보해 복분자주는 오프닝 파티서 케이터링과 함께 현지 인플루언서에게 제공됐다.

미스치프 관계자는 보해 복분자주를 파티에 선보인 이유를 '대표성'과 '컬러' 두 가지로 꼽았다.

보해 복분자주 특유의 곡선이 담긴 병 모양은 한국적 감성이 잘 드러나며, 붉은색 패키지는 이번 시즌 미스치프의 콘셉트 컬러인 '레드'와 일치해 콘셉트 톤 앤 매너가 중요한 파티에 활용하기 안성맞춤이었다는 평이다.

이번 미스치프 파리 팝업을 계기로 보해 복분자주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보해 복분자주 프랑스 수출액은 2년 전 대비 약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성 기자

가격은 내리고 크기는 올리고…더 큰 세일

롯데마트 슈퍼, 도합 50주년 기념 할인 행사 선봬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마트 창립 26주년, 슈퍼 창립 24주년 도합 50주년을 기념해 반값 할인 상품을 확대하고 상품 규격을 대폭 키운 가성비 상품을 선보이는 'THE(더) 큰 세일'을 내달 17일까지 진행한다.

고객들에게 더 크고 더 저렴한 상품을 더 많이 드린다는 의미를 담은 이번 행사는 기존 대비 할인 적용 품목 수를 약 50% 늘리고 롯데마트 슈퍼 단독 기획 상품인 '공구핫딜' 품목도 단일 행사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00여 품목을 출시했다.

엘포인트 회원은 한우, 치킨, 대게 등 주요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내달 3일까지 1등급 한우 전 품목과 통관 후 매장으로 바로 들여와 신선도가 높은 활 대게(100g)를 행사 카드로 결제 시 50% 할인한다.

인기 과일과 채소도 초특가로 구매 가능하다. 고당도 자이언트 오렌지 6개 구매 시 1개당 1천660원에 판매하고 시금치(400g·1봉)와 오이(5입·1봉)에는 농림축산부 할인쿠폰 20%를 적용한다. 29-31일까지 파프리카를 행사 카드 결제 시 1개당 992원에 판매한다.

오는 31일까지 인기 간편식인 'CJ비비고 상온 국물 요리'와 '오뚜기 분말고형 카레 짜장' 전 품목과 창립 행사 기간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등을 1+1으로 선보인다.

즉석식품 코너에서는 용량은 50% 늘리고 가격은 50% 낮춘 상품을 준비했다. 내달 3일까지 엘포인트 회원은 '반값 득템 초밥(30입)'을 5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기존 대비 채소와 밥을 절반가량 늘린 '더 커진 점보비빔밥(831g)'도 신규 출시했다.

풍미소에서는 내달 10일까지 일반 크루아상 대비 약 10배 큰 '대왕 크루아상'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마트와 슈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 상품인 '공구핫딜 씨제이 작은햇반(130g*10입)'은 1인 가구 고객들을 위해 일반 용량 대비 40% 작은 규격으로 제작한 상품으로 창립 행사 기간 8천25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정은솔 기자

롯데마트에서 선보이는 고당도 자이언트 오렌지.

일반 크루아상 대비 약 10배 큰 '대왕 크루아상'. 〈롯데마트 제공〉